이제 생활속에서 지역뉴스를 봅니다
www.igangbuk.com
보다 빠르게 지역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너광고 구독신청 보도자료
대표메일 : igangbuk@hanmail.net

서울 강북신문

대표전화 : (02)987-8076 FAX : (02)987-8079
www.igangbuk.com
2018년 3월 5일(월요일) 〈제1,148호〉 [주간]

오리요리전문점
고향산천 생오리구이 오리 훈제바베큐
예약문의 981-5959 대표 허 추 석
4호선 미아역 5번출구로 나와 100m 전방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에서 재공인 협정서 서명을 마친 박겸수 구청장, 박문수 의장, 루 파이 박사, 조준필 소장이 협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에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휘장을 전달받고 박겸수 구청장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강북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개최

## 27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내외빈 700여 명과 함께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
## 재공인 협정서 서명과 공인 선포, 공인패와 휘장 전달, 유공자 시상 등 진행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월27일 오후 3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내외에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국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음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안전도시공인 심사위원인 대만의 루 파이(Lu Pai) 박사, 조준필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 박남수 협성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안전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장, 타 자치단체 관계자, 강북구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강북구 실버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제안전도시 홍보동영상 상영, 유공자 시상에 이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협정서 서명과 공인 선포, 공인패와 휘장 전달, 축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루 파이(Lu Pai) 박사는 축사에서 "강북구는 2008년부터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실시해오면서 안전도시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임을 전 세계에 알린 우수한 사례"라며 "5년 후 다시 강북구가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정립된 것으로 현재 세계 400여 개 도시를 포함, 국내에서는 제주시, 구미시 등 14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강북구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시행하며 '구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 강북구보건소에 안전도시 추진반을 신설하고 2009년 5월 '강북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공포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이후 추진한 사업 성과를 토대로 2013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받고, 2018년에는 재공인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재공인은 2차 실사 없이 1차 실사와 공인신청서 검토만으로 공인을 받게 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초 공인 이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북한산 국립공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40여개의 사업을 120여개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안전을 향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재공인 선포식은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자리다. 강북구와 구민은 국제안전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 증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협력해 희망강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전 세계가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위에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 도봉구 명예구청장 위촉식이 도봉구청 소통협력실에서 진행됐다.

## 2018 도봉구 명예구청장 2기 위촉식 개최

### 주민 참여행정 실현 위해…10개 분야 대표하는 구민 10명으로 구성

도봉구는 2월 27일 주민 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해 '2018 도봉구 명예구청장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문화체육, 교육,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보육, 도시, 보건복지, 지속가능·협치,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명예구청장들은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간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며 구정을 고루 살피게 된다.

이번 위촉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도봉구 위상을 드높인 주민을 대상으로 구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실시됐다. 2017년 1기 명예구청장 운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구청장과의 핫라인(카카오톡, 네이버 밴드)개설, 분기별 정책 미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도봉구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구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명예구청장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진정한 의미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도봉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도봉구 서울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 최우수구 선정

### 사용 실태 진단, 기후 변화 교육 등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 거둬

도봉구는 서울시 주관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2017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양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생산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 사업이다.

이동진 구청장

도봉구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정 및 사업장 250개소에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하여 전기, 가스, 수도 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4,484명을 대상으로 총 835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역량을 키운 바 있다.

2017년도에는 전체 구민의 23%(사업장의 경우 40%)가 에코마일리지에가입하여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으며 최근 5년 연속 수상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게다가 미니태양광을 1,427가구에 보급하여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봉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마사회 강북지사가 응원합니다"

### 강북구 소재 단체 대상 지정기부금 수혜사업 공모

한국마사회 강북지사가 2018년 지정기부금 수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강북구 소재지 단체로서 한국마사회 강북지사(강북구 도봉로 302) 인근 지역 내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이번 기부금 사업을 통해 1건당 총 1백만원에서 7백만원 내외로(1단체 1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복지단체 및 개인,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가능 단체와 지역숙원사업 추진 단체가 공모대상이다. 단, △지역주민 안전 등 관련 협업사업 △공공시설, 장비 등 자본재 사업 △일자리창출사업도 해당된다.

이번 공고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담당자(6312-2010 월·화 휴무) 또는 강북구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많은 구민여러분들과 단체들이 관심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강북지사는 기부금 사업 외에도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운동 △명절맞이 소외이웃 생필품 지원 △관내 단체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북경찰서와 이륜차 배달대행업체 5개업체는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5개 업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적극 협조

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이호영)는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북구내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빵셔틀, 제트콜, 오메가, 바로고, 런투유 총 5개 업체로 강북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강북경찰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체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교통단속 및 도로체계 등에 관한 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했고, 사고영상을 시청하며 이륜차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도 가졌다.

강북경찰서 양영용 교통과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이륜차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내 고지대 취약지구 현장점검 모습.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주간을 맞아

## 북한산사무소장 고지대 취약지구 현장점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명규)은 3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주간을 맞이하여 2월24일 북한산국립공원 관내 고지대 취약지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황명규 소장은 북한산국립공원 산성지구를 찾아 국가안전대진단 주간점검 추진현황 및 고지대 낙석위험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 발견하여 해빙기 낙석 사고 발생 저감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창동초안학교를 졸업한 어르신들이 졸업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초안학교 진급·졸업식 개최

### 3년과정 마친 어르신 9명 졸업…초등학력 인정기관 창동초안학교 3년째 운영 중

창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영대)이 지난 28일 학력인정 문해교육 창동초안학교 입학·진급·졸업식을 개최했다.

창동초안학교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다.

총 3단계 3년의 커리큘럼을 통해 졸업을 하게 될 경우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되며 현재 38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참고로 창동초안학교는 지난 3년동안 14명의 졸업생을 배출 한 바 있다.

행사는 한유택 초안학교 명예교장이 졸업자들에게 졸업장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진급·졸업자들의 소감 및 시화발표, 내빈 인사말, 강사소개, 자원봉사자 소개, 한유택 명예교장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한유택 명예교장은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을 멈추면 죽는것과 다름없다. 창동초안학교를 통해 배운 것을 잘 활용해 의미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영대 관장은 "창동초안학교에서는 단순한 한글교육만이 아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압축시켜 놓고 있다. 배움은 끝이 없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는 내년도 창동초안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졸업생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하고, 진급하는 분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웅 의원은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있는 한유택 명예교장선생님과 최영대 관장님께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소감문 발표 시간에서 최진례 어르신은(1단계) "지난 1년간 배움의 시간은 행복과 기쁨이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김종임 어르신은(2단계) "맞춤법이 어려웠지만 즐거웠다. 공부의 기회를 만들어준 복지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김효녀 어르신은(2단계) 직접 쓴 시화로 소감을 전했고, 이민자 어르신은(3단계)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다. 창동초안학교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시화전에서 수상의 기쁨을 느꼈다. 그동안은 은행이나 간단한 서류를 작성 할 때에도 맞춤법 때문에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극복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입학식 및 졸업식에는 29명의 어르신이 새로 입학했고, 31명이 진급. 9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다.

## 강북새마을금고 우수학생 장학금 2천만원 전달

### 지난 22일 우수장학생 40명 선발해 각 50만원씩 전달하고 격려

강북새마을금고(이사장 이윤직)는 지난 2월27일 오전 11시 새마을금고 본점 2층 강당에서 우수장학생 4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북구새마을지도자 자녀들과 새마을금고에서 추천 선정한 모범학생 40명이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윤직 이사장은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는 할 수 없는 사회환원 사업을 강북새마을 금고는 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으로서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마련된 장학금이니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새마을 금고의 규모와 조세감면특례법으로 다른 은행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내빈으로 강북새마을지회 차충제 회장과 새마을금고 이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 모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강북새마을금고는 사랑의 좀도리운동 등을 통해 모금된 기금과 수익발생의 일부를 지역 환원을 통해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를 가져왔으며 여름철엔 방역을 위해 애쓰는 강북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전달하고 문고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강북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장학금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새마을방역비 지원을 비롯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27일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윤직 이사장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보성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200만원 상당의 겨울의류를 도봉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보성사, 도봉1동 주민센터에 의류 전달식 가져

### 1,200만원 상당 겨울의류 기탁…인강원, 소외계층 등에 전달 예정

의류공장 보성사(도봉구 소재)가 지난 2월 19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200만원 상당의 겨울의류를 도봉1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보성사 김보연 대표는 "오늘 전달해 드린 의류가 추운 겨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역 내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봉1동 김광우 동장은 "이웃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담긴 의류를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후원 받은 의류는 도봉구 내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인강원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인터넷홈페이지 www.igangbuk.com 광고/구독 신청 987-8076

## 강북구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화봉송 지원

### 강북구에서 4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화봉송 행사 펼쳐져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펼쳐질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화봉송 여정이 2일부터 9일까지 총 8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에서도 3월 4일 성화봉송 행사가 펼쳐진다.

강북구는 이번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봉송 행사에 대회의 정신과 비전확산을 위해 행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성화는 4일 오후 4시 25분에 쌍문역(도봉구)에 도착한다. 봉송 구간은 쌍문역에서부터 우이교(강북구)를 지나 수유역 (강북구)까지 총 8개 구간을 16명의 주자가 봉송한다.

도봉구 구간을 지나 강북구로 봉송된 성화는 우이교 인근 인화의원(도봉로 405)에서 오후 4시 43분에 시작돼 59분에 수유역 5번 출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는 교통통제 및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 안내를 비롯해 현수막, 입간판 등을 게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 구민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행사 당일에는 성화봉송로 운영에 따른 통제시설 설치,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봉송로 구간청소 등도 추진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성화봉송 구간에 강북구가 포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께서도 평창 겨울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봉소방서와 도봉경찰서 대원들이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국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도봉소방서·도봉경찰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홍보물 배부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등 합동으로 활동펼쳐

도봉소방서는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도봉구 관내 일대에서 소방차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도봉경찰서 합동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국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및 캠페인은 최근에 대형화재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계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통로확보 홍보물 배부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홍보방송 전개 △불법 주·정차된 차량 계도 등이다.

김형철 서장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야 말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북신문
주민에게 도움되는 신문
주민에게 힘이되는 신문
주민과 함께하는 신문
앞으로 나아가는 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 장승일
회장/편집위원회: 김억기
인 쇄 인: 이정자
발 행 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4길 14(미아동, 2층)
대표전화: (02)987-8076
팩 스: (02)987-8079
구 독 료: 1년 10만원(1부 2,000원)
계좌번호: 1005-801-795342 우리은행 예금주-(주)서울강북신문
1995년 4월21일 등록번호 서울다-04302
본지는 주간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www.igangbuk.com

번동3단지복지관은 28일 저장강박 증상 주민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사업 '청정이웃지원센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 저장강박 주민 문제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번동3단지복지관, 복지시스템 구축사업 '청정이웃지원센터'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상진)에서는 지난 2월28일 강북구내 저장강박 증상 주민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사업 '청정이웃지원센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강북청정이웃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의 지원으로 2017년부터 3년간 강북구내 저장강박증상을 가진 주민의 주거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주민 발굴시스템 구축, 지역안전망 구축, 문제해결 역량강화, 복지시스템 구축, 인식개선 및 사업확산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북구내 민간기관 중 저장강박 증상주민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0기관 15명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들은 저장강박 주민발굴지원, 사례관리 협력, 재능 및 자원 나눔, 기타 저장강박 주민 지원을 위해 협의된 사업 등 저장강박증상 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강북청정이웃지원센터'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해 온 기관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강북구내 저장강박증상 주민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함께해 주신 협력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복지관은 저장강박증상 주민을 포함한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동검도협회 제246차 입·승단심사 참가한 청소년들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박주형 국장의 모습.

##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검도교실 7명, 2단 승단

### 박주형 국장 2011년 재능기부…꾸준한 활동으로 성과 이뤄

도봉구 창2동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대표 원종민, 센터장 장경필)는 지난 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해동검도협회 제246차 입·승단 심사에서 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원 2단으로 승단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번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승단 소식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센터의 검도교실이 도봉구청 박주형 국장의 재능기부로 시작돼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센터는 현재 도봉구청 박주형 국장의 재능기부로 지난 2011년부터 관내 초·등·고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검도 교실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검도교실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센터 강단에서 진행되고있으며, 현재까지도 30여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검도를 갈고 닦고 있다.

아름다운지역아동 장경필 센터장은 "검도가 단지 몸을 만들고 바르게 하는 운동만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박주형 국장님이 창2동장으로 오셨을 때 인연이 되어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해 주실지 몰랐다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도를 지도하고 있는 박주형 국장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이들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거리낌 없이 다가와 본인들의 진로며 친구간의 고민도 얘기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박주형 국장이 매달 한 번씩 수업에 참여 해 아이들의 품새를 교정해 주고 이번 2단 승급한 이영광 대학생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선배들이 후배 아이들을 지도하여 선배들에게는 자원봉사시간을 주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더불어 사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제6회 창2동 에코벚꽃축제 추진위 출범

### 4월 7일 에코벚꽃축제 앞두고 각계각층 전문가로 추진위 구성

창2동 에코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2월 22일 '제6회 2018년 창2동 에코벚꽃축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직능단체, 문화예술전문가, 지역상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제6회 에코벚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1회 임원회의 개최, 야간 개장에 따른 먹거리 확보 방안, 체험부스 및 벼룩시장 참여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두고 논의한다.

오는 4월 7일 개최되는 에코벚꽃축제는 창2동 태영데시앙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 앞 우이천 도로 300미터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열린다. 서울스타 노래자랑, 청춘 버스킹 어게인, 벚꽃콘서트, 각종 체험부스와 먹거리장터, 벼룩시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매년 벚꽃이 필 무렵이면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축제 준비에 매진하곤 했다"며 "올해로 여섯 살을 맞는 에코벚꽃축제를 통해 창2동의 화합을 이끌고 진정한 마을공동체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전진대회에 참석한 내빈들과 당원들이 6.13 지방선거의 필승을 외쳤다.

오기형 위원장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 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전진대회 3일 개최

### 오기형 위원장 "민심에 의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지난 3월 3일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약 600여명의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진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재근 국회의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민병두·박영선·우상호·우원식 국회의원과 도봉구 시·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김동욱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전진대회 1부에서는 오기형 위원장의 개회사, 내빈소개, 축하영상, 6.13선거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 축사, 도봉을 위원회 활동영상 시청이 차례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우원식 의원의 6.13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3부에서는 필승 결의문 낭독이 차례로 이어졌다.

인재근 의원은 "전진대회를 앞두고 마석에 다녀왔다. 오기형 위원장과 함께 도봉을 위원회 모두 6.13 승리를 위해 힘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겨울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다. 여러분들이 만든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는 6.13지방선거 승리가 꼭 필요하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도봉구의 열정이 오늘의 자리에 모여진 것 같다. 6.13지방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올해 첫 봄을 느끼는 오늘. 도봉구에서 전진대회가 개최된 것은 새 출발을 위한 좋은 의미인 것 같다. 6.13지방선거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오기형 위원장은 서울대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이었다. 이러한 오기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6.13에서 압승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총선에서의 아쉬움을 달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6.13지방선거는 평화의 꽃을 피우는 첫 걸음이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가 꼭 필요하다.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지난 총선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하나 된 모습으로 꼭 승리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 추미애 당 대표와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6.13지방선거의 승리를 응원하며 전진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6.13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강의했고, 오기형 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당원들의 목소리, 즉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달랐던 마음들 과거로 미뤄두고 민심에 의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아량 청년위원장과 유기훈 여성위원장이 대표로 필승 결의문을 낭독했고, 참석 당원 모두 함께 6.1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첫날 강북구의원선거 4명 등록…선거사무소 설치 등 가능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현찬)는 3월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북구청장 선거와 서울시의원 및 강북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강북구청장선거 200만원 , 서울시의원선거 60만원, 강북구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수리 후 지체없이 (http://ingo.nec.go.kr)를 통해 공개하며, 선거정보 모바일 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2일에는 강북구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 4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청장 선거와 서울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첫날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덕영(강북구가, 바른미래당) 김일웅(강북구나, 정의당) 허광행(강북구라, 더불어민주당) 구본승(강북구라, 무소속) 등 4명이다.

영훈국제중학교 학생들은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 20kg 38포와 성금 30만원을 송천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영훈국제중 송천동주민센터에 성금품 전달

### 송천동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 장애인 가구 가구에 쌀과 성금 전달

강북구 송천동주민센터(동장 우종훈)가 지난 2월7일 영훈국제중학교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은 이날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 20kg 38포(160만원 상당)와 성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품은 학교 축제인 '라온제나'와 뮤직리사이틀(악기연주회)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쌀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따뜻한 설 선물로 전달됐으며, 성금 30만원은 송천동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영훈국제중에서는 "평소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책 전달 및 학습지도 봉사를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나눔 실천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www.igangbuk.com

## 6·13지방선거 열기 서서히 달아오른다

### 2일 단체장·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돼 선거열기 본격화

2월1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3월2일부터는 시·도의원, 시·군 단체장과 의원 후보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120일간의 6·13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선거열기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선거를 겨냥하는 예비후보들이 본선 진출을 위해 혈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민자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은 오로지 유권자에 달려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제대로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선관위가 공개하는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세금납부 사항으로도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적어도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해결 방안을 지니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역량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먼저 2월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을 받고 3월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을 받아 활동한 뒤 5월24일과 25일 양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들은 5월31일 선거기간 개시일에 맞춰 투표 전날인 6월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 기간중인 6월8일과 9일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를 하고 6월1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한 후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를 하면 당락이 결정된다.

**■지방선거 1인7표제 우리동네 일꾼은?**

6월13일 수요일에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할 표가 무려 7장이나 된다. 1인 7표제, 7번의 투표를 통해 우리 동네 일꾼을 뽑게 되는 것이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선거), 광역의원(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기초의원(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총 7표를 행사하게 된다.

7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1차에서는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시·도교육감선거 총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게 되며, 2차에서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7표를 투표하는 만큼 투표하는 방식도 큰 틀에 있어선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먼저 투표소에 들러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이 때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서명이 끝나면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내용이 보이지 않게 3장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함께 넣는다. 그 다음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고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후보자 혹은 정당에 기표한다. 기표한 후에는 1차처럼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넣으면 끝난다.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훈련

강북소방서(서장 백남훈)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장대응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 숙달함으로써 상황별 대응능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연중 실시되며 현장상황에 맞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이 시작된다. 종료 후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화·보완하는 훈련이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28일 복지관 내에서 '2018 정월대보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어르신과 지역주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민숙)은 2월28일 복지관 내에서 '2018 정월대보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먼저 사물놀이 동아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직원들의 새해 인사를 가졌고, 윷놀이, 투호, 딱지치기, 컵쌓기, 다트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 등 100여명이 참가해 8개 팀으로 나누어 화합을 도모하며 저마다의 놀이 실력을 뽐냈다.

각 놀이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놀이에서는 김순O 어르신 외 9명으로 구성된 조가 우승을 차지하며 마무리가 됐다.

김민숙(종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은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은 마을단위의 명절로 나눔의 의미와 소통이 더해지는 의미있는 날이며, 한해동안 풍년을 기원하고 액(厄)을 떨쳐내는 우리 세시풍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정월대보름 행사를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행복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강북로타리클럽은지역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이웃사랑 행사를 진행했다.

## 새강북로타리클럽, 생필품 110세트 후원

### 번동3단지복지관 찾아 어르신 위한 아름다운 이웃사랑 행사 진행

새강북로타리클럽(회장 이진호)에서는 지난 2월28일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상진)을 찾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이웃사랑 행사를 진행했다.

새강북로타리클럽은 2012년부터 매년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복지관을 통해 추천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강북구내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새강북로타리클럽 회원 5명이 참석했으며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10명에게 생필품 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새강북로타리클럽 이진호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매년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며, 이런 나눔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이웃사랑을 느끼시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오른쪽은 각 직급별 대표들이 연명부 서명식을 하고 있는 모습.

## 강북구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가져

### 26일 직원 300여 명 모여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와 서명식 가져
### 강북구선관위 지자체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해 큰 호응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지난 26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해영 부구청장과 300여 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하고 직급별 직원 대표의 서명식을 가졌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유수민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각종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 협조 등이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수민 지도담당관은 "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헷갈리는 부분은 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오해영 부구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인수동, '복떡방'과 나눔가게 협약 체결

### 저소득층 어르신에 떡 제공, 생활관리사가전달하며 안부 확인

강북구 인수동 주민센터(동장 박규탁)가 지난 2월23일 복떡방(대표 강남길, 강북구 삼양로 425)과 나눔가게 협약식을 가졌다.

인수동 주민센터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이 제공하는 식품·서비스를 연계해 건강한 인수동을 만들고 주민 주도의 기부문화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복떡방에서는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각 10세대를 선정해 복떡방에서 직접 만든 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명이 지원대상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나눔가게 참여 의사를 밝힌 복떡방의 강남길 대표는 "인수동 나눔가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떡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규탁 인수동장은 "지속적으로 나눔가게 홍보에 힘쓰고 지원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인수동을 나눔정신의 지역공동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다세대주택 고드름 안전조치 마쳐

도봉소방서는 지난 20일 21시 38분경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고드름 제거요청을 받고 출동해 고드름을 제거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전개해 보았지만 다세대주택 3층 베란다에 맺힌 고드름이 닿지 않자, 로프를 매달아 제거 후 안전조치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파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맺혀있던 고드름이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강북구에도 서울형 어르신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 서울형 어르신데이케어란?

서울시에서는 2009. 7. 1.부터 일정한 조건과 기준(평가인증통과)을 갖춘 시설을 선별하여 [서울형데이케어센터]로 공인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어르신을 낮 시간 뿐 아니라 아침 8시 ~ 10시까지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복지재단은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 운영관리를 검증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데이케어 인증절차(엄격한 기관 현장심사)

인증신청 (시설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재단,실사단) ▶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 인증부여 (시 장)

□ 강북구서울형데이케어협의회(강북구내 차별화된 데이케어센터)

서울형데이케어의 운영 취지를 높이고 보다 균질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북구 내 서울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다섯 기관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순)

| 기관명 | 주소(강북구) | 전화번호 | 행정동 | 홈페이지,블로그 |
|---|---|---|---|---|
| 강북노인주간보호센터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병설) | 삼양로92길 40(수유동) | 992-6784 | 인수동 | http://www.gswc.or.kr/ |
| [구립]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 | 오패산로 290(미아동) | 986-1217 | 미아동 | http://gangbuksilver.or.kr/ |
| 번동데이케어센터 | 월계로 187, 2층(번동) | 980-3004 | 번3동 | http://cafe.daum.net/beondongdaycare |
| 수유데이케어센터 | 덕릉로46, 3층(수유동) | 945-8846 | 수유동 | http://cafe.naver.com/suyudaycare/ |
| [구립]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 노해로23길 94(수유동) | 070-7475-4020 | 수유2동 | http://cafe.daum.net/suyudaycare/ |

□ 서울형데이케어 이용안내

[이용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을 받으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절차]

입소상담 (전화/내방) ▶ 이용신청 구비서류제출 ▶ 임시 적응기간 ▶ 판정회의 ▶ 이용승인통보 입소확정

[제공서비스]
1. 치매전문서비스 :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2. 이동서비스 : 어르신 모셔오기 모셔다 드리기 등
3. 기능회복 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발맛사지 등
4. 영양서비스 : 주식 및 간식 제공 등
5. 위생,청결서비스 : 구강케어, 목욕서비스 등
6. 건강지원 서비스 : 기초건강체크

[구비서류]
1. 장기요양등급인증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주민등록초본
3. 건강진단서(보건소 발급)
4.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또는 처방전

[비용]
1. 본인부담금: 개인부담금 15% + 비급여(식, 간식대)

강북구서울형데이케어협의회

## ◆구인정보

| 사업장명 (구인등록번호) | 직종 | 근무시간 | 채용 인원 | 임금 (만원) | 근무지 | 접수 마감일 | 제공 담당자 (서울북부고용센터) |
|---|---|---|---|---|---|---|---|
| ㈜한양티센(노원지사) (K120511802210013) | 승강기설치·정비원 | 09:00~18:00 (주5일) | 3 | 월급 195~350 | 도봉구 창동 | '18.3.31. | 김학균 (☎2171-1761) |
| ㈜그린주의 (K120511802210020) | 소프트웨어 개발자 | 09:00~18:00 (주5일) | 2 | 월급 250 | 중랑구 상봉동 | '18.3.23. | 윤미경 (☎2171-1764) |
| 효성요양병원 (K120511802220023) | 조리사 | 06:20~18:40 (월8회 휴무) | 1 | 월급 183 | 강북구 미아동 | '18.3.10 | 허정아 (☎2171-1733) |
| ㈜여인닷컴 (K120511802260008) | 인바운드 상담원 | 09:30~18:00 (주5일) | 3 | 연봉 2400 | 도봉구 도봉동 | '채용시 | 김학균 (☎2171-1761) |
| 메트로버스주식회사 (K120511802230035) | 회계사무원 | 08:30~17:30 (주5일) | 1 | 연봉 2200~3000 | 중랑구 신내동 | '18.3.23 | 윤미경 (☎2171-1764) |
| (복)한국사회봉사회 (K120511802260020) | 사회복지사 | 09:00~18:00 (주5일) | 1 | 연봉 2400 | 도봉구 쌍문동 | '18.3.12 | 김학균 (☎2171-1761) |
| 대륙여객자동차(주) (K120511802270011) | 경리사무원 | 08:30~18:00/ 09:00~12:00 (주6일) | 1 | 월급 160 | 성북구 장위동 | '채용시 | 김경자 (☎2171-1892) |
| ㈜택시라이프 (K120511802280004) | 자동차정비원 | 08:30~18:00 (주6일) | 2 | 연봉 2400 | 도봉구 창동 | '18.3.10 | 김학균 (☎2171-1761) |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구인정보(잡코리아, 사람인, 인쿠르트 등 13개 외부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구인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국비지원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등)를 원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FAX: 02-6915-4089),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김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내빈들과 함께 손을 들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시당위원장,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동수 위원장, 정양석 국회의원.

## 김동수 위원장 취임식 및 당원화합한마음대회 개최

### 김동수 위원장…"죽을 각오로 선거에 임해 승리의 역사 반드시 쓰겠다" 강조

김동수 자유한국당 강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2월28일 오후 2시 호텔빅토리아 웨딩 플로체 5층에서 열린 김동수 위원장 취임식 및 당원화합한마음 대회에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도봉을), 정양석 국회의원(강북갑), 여명 전 혁신위원,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 박종환 전 시의원 등과 많은 당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선동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나폴레옹 김동수와 함께 빼앗긴 강북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세상을 정복할 때는 나폴레옹이지만 지역에서 마음을 얻을 때는 정성의 마음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김동수가 잘되는 것이 강북을 지역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양석 국회의원은 "집념이 똘똘 뭉친 단단한 인물 김동수와 함께 손잡고 강북구를 발전시켜나가겠다. 이제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서서 구민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수 위원장의 첫 출발에 큰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젊고 비전 넘치는 김동수 위원장은 서민의 대변자이고 뜨거운 용기와 열정을 가진 정치의 희망의 싹이다. 앞으로 강북을에서 김동수를 키워낼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희망을 찾아줄 인물이 바로 김동수 위원장이며 그런 큰 인물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동'의 생활철학을 제시한 뒤 "기쁨과 행복을 주는 정치를 한다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강북을을 옥토로 만들고 다윗의 지혜로 강북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당원들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죽을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다. 좌절과 나락과 패배의 역사를 가진 강북을지역에 자유한국당의 깃발을 꼽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다들 이 지역이 험지라고 하지만 패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말로 동의하지 않고 강한 옥토로 만들기 위해 조직강화가 승리의 길이라는 것으로 알고 강북에서 나폴레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라. 믿고 해낼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자신감이 없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해왔던 것"이라며 "이길 수 있다는 투지를 갖고 죽을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 당선의 꽃다발을 안고 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북을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당대표를 존경하고 당지도부를 따를 때 내부가 결집되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리해서 당의 승리를 떠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강북을에서 원내대표가 나오고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북을당협위원장인 저 김동수와 함께 똘똘 뭉쳐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청년위원장과 대학생 대표가 나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여명 전 혁신위원의 당원교육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강북을 당협위원장에 취임한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월19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강북구을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성균관대 법대, 연세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홍준표 대선후보 직능위 금융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을 거쳤다.

제6회 우수의장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 하는 강성언 의원(오른쪽).

## 강성언 시의원 '제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교육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로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강성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2월2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6회 지방의원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 중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성언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서울시 학교안전위원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현재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 대표의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직속기관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자해소에 기여했으며,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과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다.

강성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에 주신 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기옥 민주평화당 강북(갑)지역위원장 선임

### "민생, 평화, 민주, 개혁정신으로 강북발전에 매진하겠다"

김기옥 위원장(전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이 민주평화당강북(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민주평화당은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14곳과 강북구갑 김기옥 위원장 등 47명의 원내외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쳤다.

국민의당 사수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25일 창당발기인 대회에 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1일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문제 해결, 김대중 햇볕정책의 계승발전, 촛불시위로 나타난 개혁을 원하는 민심 완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기치로 내걸고 2월6일 창당했다.

대방동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당 창당대회에는 창준위 대표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하여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과 정호준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기옥, 홍성문, 한웅 등 원외지역위원장과 정대철, 박양수, 문팔괘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정호준 전 의원을 추대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김기옥 위원장은 "창당 정신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온갖 꼼수로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며 민주평화당 창당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김기옥 위원장

김기옥 위원장은 230여 명의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을 대표하는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원외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김 위원장은 "DJ정신과 민주정신의 계승, 중도개혁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앞장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기옥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을 중심가치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당, 서민과 중산층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촛불혁명' 정신의 완성을 목표로 창당한 정당"이라고 강조한 "민생, 평화, 민주, 개혁정신으로 강북발전, 정치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부과 필요"

### 김창원 의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발의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선진국가와 같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전자기기의 보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규정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지적했다.

홍국표 의원(사진 오른쪽)이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노후도로 안전확보, 환경정화 활동 등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 펼쳐

## 홍국표 의원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미래를 여는 산업 대상'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뉴스와 ㈜지구촌문화예술재능나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코리아 베스트 의정·미래를 여는 산업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 사기업과 공직부문 등에서 평소 봉사, 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내 노후도로 안전 확보, 환경정화 등 현장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여 그 공적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홍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문제와 구민의 어려움을 내일같이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영심 의원이 '나이팅게일 의정포럼' 에서 대한간호정우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이영심 의원 대한간호정우회 의정대상 수상

###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간호계의 위상 높여 수상

강북구의회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난 2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에서 대한간호정우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간호계의 위상을 높이고,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영심 의원은 강북구 3선 의원으로, 제7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7대 쓰레기무단투기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192회, 195회)등을 역임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생활 속주민의 안전에 힘써왔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영심 의원은 "간호사 출신 구의원으로서 전국 간호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남보다 먼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태용 의원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도봉구의회 이태용 의원 의정대상 수상

### 어린이놀이터 관리조례 및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등 의정활동 펼쳐

도봉구의회 이태용의원이 지난 20일 금천구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이태용 의원은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과 지역주민의 보행로 및 등하굣길 환경정비 등 지역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공적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수상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난 2월2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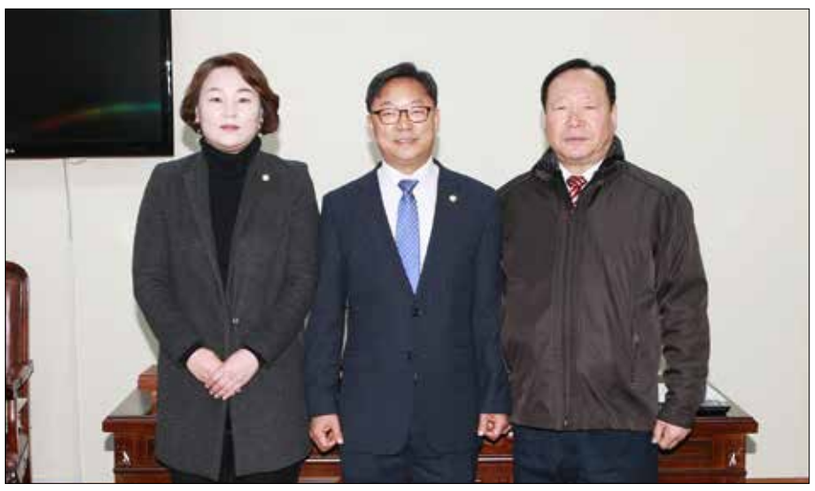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문수 의장은 강북구의회 제2대, 제3대, 제6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7대 후반기 강북구의회 의장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상호 유대강화와 협력 기능 등을 조화롭게 수행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데 앞장섰다.

박문수 의원

이날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박문수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는 26일 삼양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학원가조성 기반마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 삼양사거리일대 학원가조성 추진 보고받아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이용균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 한동진 위원)는 지난 2월26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삼양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학원가조성 기반마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삼양사거리 일대 학원가 조성은 도시공간 위계가 격상되고 재정비사업 등으로 배후주거지가 확대된 삼양사거리 일대에 대하여 청년 인구가 집중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육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지속 · 증대하기 위한 '젊은강북'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추진 경위, 조성 위치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원가 조성을 위한 서울시 건의 및 조율 상황,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신축 학원의 혜택,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추진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균 위원장은 "삼양사거리 일대에 학원가가 조성되어 활기찬 삼양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 및 도로, 보도 등 기반시설 개선 등에도 힘써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빨래골 도로 확장 공사 현장'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살펴봤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 빨래골 도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현장 점검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빨래골 도로 확장 공사 현장'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2월26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강북구 삼양로 299(수유1동 주민센터)~수유동 산127-1(마을버스 종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빨래골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사업 개요,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 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 후 공사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3월2일에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 경위,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은 강북구 우이동 316외 8필지 일대에 2019년 공사발주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백균 위원장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우이동 가족캠핑장 개장 시 강북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 전국 최초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3월 관내 44개 국공립어린이집에…미세먼지 농도 색깔로 표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지난 1월 2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서울 지역에서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가 닷새 연속으로 '나쁨'수준을 이어갔던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지만 영유아들은 정보기기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질 정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은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교통 신호등처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의 4가지 색깔로 알려준다.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표정과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영유아들도 이 신호등을 통해 대기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상태를 수치로 알려주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다.

구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3월 9일까지 관내 44개 국공립어린이집 출입현관에 설치를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4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운영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월부터 도봉구 내 어린이집에 설치될 미세먼지 신호등의 모습.

도봉구의 정월대보름 한마당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이 축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 도봉구민과 함께 '2018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

### 풍물단 길놀이 시작으로 솟대놀음, 소원지와 달집태우기 등 진행
### 이동진 구청장 "도봉구 활력 있는 문화도시로 한 발 더 발전하길"

도봉구민들이 모두모여 무술년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도봉구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지난 2일 중랑천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정월대보름 한마당은 방아골도깨비풍물단, 창울림 풍물단, 하늘땅 풍물단 등 지역 연고 풍물단의 신명나는 공연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풍물놀이 공연과 타악연희단 '훤(단장 감종문)'이 퓨전 타악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장의 열기를 달궜다. 또 조선 후기 전국 팔도를 떠돌던 전통 유랑연희단인 솟대쟁이를 계승한 '솟대쟁이 보존회(회장 양근수)'의 솟대놀음 한마당이 구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외에도 농악, 무동놀이, 오방사자춤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 공연을 펼쳤으며, 공연을 본 구민들은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마당도 마련됐다. 팽이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놀이 등을 즐길 수 있게 했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고, 아이들은 전통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됐다. 구민들의 소원이 적힌 5천여장의 소원지가 태워지며 이뤄낸 장관이 구민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이동진 구청장은 축원문을 통해 "지난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봉구의 가치와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도봉구의 서울아레나 건립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사업으로 포함돼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도봉구가 활력있는 문화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술년 한 해 동안 자치와 분권이 더욱 확대되어 국민 주권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의 문이 열리고, 마을민주주의 꽃이 필 수 있길 바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욱 의장은 "2018년은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도봉구 발전을 위해 더욱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고 도봉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자랑스러운 구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봉을) 오기형 위원장은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희망들 함께 기원하는 자리에 참석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분열하고 대립하면 될 일도 안 된다. 화합하는 모습으로 도봉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함께 약속하자"고 말했다.

## '명예보호관찰관, 청소년 문화와 만나다'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명예보호관찰관과 결연행사 및 발대식 실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 2월26일 명예보호관찰관 3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밴드부원 11명에 대한 상담 결연 및 프로그램 발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작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음악밴드를 지도 중인 강북청년자립협동 조합 소속 인디밴드 강사 2명이 특별법사랑 위원으로 위촉 되어 명예보호관찰관 3명과 함께, 음악밴드에 참여 중인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음악 지도와 더불어 전문상담을 병행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는 작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특기 발견을 위해 강북청년자립협동 조합 '수유리콜라보'에서 전문가의 지도로 음악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연식을 통해 명예보호관찰관과 함께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에 대한 교정과 장래진로 등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음악밴드 연습현장을 참관하고 2명의 보호관찰 청소년과 결연한 명예보호관찰관 김재은 씨는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에 열중하는 등 건전한 취미활동과 더불어 미래를 구상하는 광경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박재봉 소장은 "상담활동 등 전문적 식견을 가진 명예 보호관찰관이 이번 결연으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군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봉소방서, 도봉산 산악구조 나서

### 빙판에 미끄러진 등산객 구조해 인근 병원에 이송

도봉소방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34분 경 도봉산 무수골 자현암 인근에서 등산 도중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양모(남, 61)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도봉소방서 대원들이 도봉산 무수골 자연암 인근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요구조자가 빙판에 미끄러져 대퇴부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 간단한 응급처치 후 들것을 사용하여 하산 후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에 인계하여 병원에 이송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은 "등산로에 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하면서 빙판길이 많이 형성 되어있어, 해빙기 산행 중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산행 시 아이젠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주의 운세- 2월26일~3월4일

■쥐- △96년생- 좋은 운이 다가오니 조급해 마라. △84년생- 상가나 건물매매는 서남방으로 추진하세요. △72년생- 금전융통은 박씨 안씨 추씨에 부탁하세요. △60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시선을 한 몸에 받겠다. △48년생- 마음먹고 일을 진행하지만 방해자가 온다. △36년생- 문서상 약속은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소- △97년생-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뒤 직업을 택해라. △85년생- 아파트 빌라 주택매매는 동북방으로 추진하세요. △73년생- 재정문제는 동남방으로 진출하세요. △61년생- 직장생활자는 부업도 생각하는 운세다. △49년생-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운세다. △37년생- 흘러갈 도랑을 파두는 것이 현명하다.

■범- △98년생- 헤어진 아픔을 치료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린다. △86년생- 점포매매는 서북방으로 추진하세요. △74년생- 금전문제는 이씨 유씨 최씨에 부탁하세요. △62년생-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라. △50년생- 뜻하지 않는 사고에 대비하라. △38년생- 순응하는 사람은 손재수가 있다.

■토끼- △99년생- 직업을 구하려면 동남방으로 진출하세요. △87년생- 토지 땅 대지매매는 남서방으로 추진하세요. △75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답답함을 느낀다. △63년생- 자격지심은 도움 되지 않으니 자존심 버려라. △51년생- 거만한 행동을 하여 손해볼 염려가 있다. △39년생-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용- △88년생- 장사나 사업의 확장은 뒤로 미루어라. △76년생- 아파트 빌라 주택매매는 좋은 소식이 오는 운이다. △64년생- 재정문제는 동서방에서 희소식이 온다. △52년생- 대책 없이 뒤통수를 맞으니 고생이다. △40년생- 곤란한 부탁은 미적거리지 말고 거절하라. △28년생- 음양의 이치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들여다보인다.

■뱀- △89년생- 독보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민감하다. △77년생- 상가나 건물매매는 북서방으로 추진하세요. △65년생- 신용문제 금전문제는 김씨 정씨 노씨에 부탁하세요. △53년생-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하라. △41년생-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29년생-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말- △90년생- 예리한 직관력과 예견이 힘을 발휘한다. △78년생- 점포매매는 남북방으로 추진하세요. △66년생- 금전융통은 최씨 유씨 황씨에 부탁하세요. △54년생- 적이라 할지라도 손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42년생- 환경적으로 변화가 찾아오나 걱정하지 마라. △30년생-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두려움이 존재한다.

■양- △91년생- 원하는 직장이 나타나는 운이다. △79년생- 토지 땅 대지매매는 희소식이 오는 운이다.. △67년생- 금전문제는 기쁨 통신이 오는 운이다. △55년생- 생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는 운이다. △43년생-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계속된다. △31년생- 경험도 협력자가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원숭이- △92년생- 위기란 지나고 나면 좋은 기회가 된다. △80년생- 아파트 빌라 주택매매는 북남방으로 추진하세요. △68년생- 금전융통은 동료나 지인에 부탁하세요. △56년생- 오전에 나쁜 기운은 조심해야 한다. △44년생- 자식 때문에 야기된 문제는 풀기 어렵다. △32년생- 자녀문제로 근심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닭- △93년생- 좋은 일과 궂은 일이 있지만 결과는 약하다. △81년생- 상가나 건물매매는 남동방으로 추진하세요. △69년생- 재정문제는 동북방으로 진출하세요. △57년생- 권력을 손에 쥐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45년생- 돌부리에 채어도 담을 원망하지 말라. △33년생-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마무리 지어라.

■개- △94년생- 연꽃 위에 올라서면 눈앞이 깨끗해진다. △82년생- 토지 땅 대지매매는 서북방으로 추진하세요. △70년생- 금전융통은 박씨 강씨 지씨에 부탁하세요. △58년생- 결정적으로 승부를 짓는 운이 온다. △46년생- 당장 아쉬워도 금세 일어서지 마라. △34년생- 경거망동하면 일을 망치게 된다.

■돼지- △9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는 등한시 말라. △83년생- 상가나 건물매매는 북서방으로 추진하세요. △71년생- 신용문제 금전문제는 정씨 신씨 조씨에 부탁하세요. △59년생-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실천해라. △47년생- 사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기 쉽다. △35년생-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반성이 필요하다.

[백운의 "주간운세" 백운선생 제공] www.backun.com
전화 010-5898-3050, 051-558-2485

◆서울시의회 소식

## 김동승 의원, 5분 발언 통해 도시개발·교통·복지 등 정책 제언

김동승 시의원(바른미래당, 중랑3)은 2월21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각종 정책의 개선방안 및 조속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30 서울플랜의 활성화로 4차 산업의 개발과 서울외곽지역을 중심으로 R&D와 생산시설을 겸한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지구단위 계획의 재점검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보완정책으로써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제반운영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치구비, 사업의 매칭예산으로 100%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광역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조치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장기 불법 도로시비와 소음분진을 해소하고 강남북 간의 다이렉트 소통으로 균형발전의 큰 틀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미터널과 어울려진 수변공원조성으로 주민편익차원에서 영역의 저변을 확대하며 장미마을의 중화동과 묵1동지역 저변확대 그리고 신도아파트 브라운스톤아파트 주변 묵동 154,155,159번지 일대 묵동천제방 주변과 화랑도깨비시장 주변까지 포괄한 묵동천 주변정리로 장미터널과의 연계는 물론 신장미마을 파운다리가 조성되어 민원을 충족하고 일대의 관광자원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봉화산 공원화사업의 한축이면서 주민숙원사업인 화랑마을뒷산의 소공원화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으로 주민편익사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민원을 함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호선의 구리시장역과의 연장으로 광역지하철 가로망의 조기형성과 함께 외곽으로 소통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통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황준환 의원,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 고무적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서3)은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을 규정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지적한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6%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다. 황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4%, 2016년 4.1%, 2017년 4.6%까지 장애인고용률이 확대됐다.

황 의원이 밝힌 장애인고용률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직 채용시에만 장애인 가산점(10점)을 부여했지만 개선결과 전 채용분야에 장애인 가산점을 확대부여 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직무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했으며, 장애인 직무수행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지키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5%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 저가쇼핑 관광 "No!" IT 문화예술 체험 "Yes"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트랜드가 단체방문에서 개별방문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황규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지난 2월 22일 서울관광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세미나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분과위원인 황의원과 한인섭 교수(서울시립대), 김영성 청소년교육전략21 대표, 이성모 교수(서울대), 최노석 장터투어 대표를 비롯하여 외부전문가로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라뜰리에 테마파크 조웅래 회장, 태원세무법인 배상덕이사가 참석하여 '서울관광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관광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세미나 발제 자료에서 국내를 방문한 2016년 외래관광객 1,500만 명 중 50%가 중국관광객임에도 불구하고 저가관광, 저가 덤핑상품공세로 관광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관광객의 전 세계적인 여행스타일이 쇼핑 중심(2/3→1/3)에서 식사,유흥 등의 개별체험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이날 발표에 나선 최 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드론 오륜기 퍼포먼스처럼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다양하고 색다른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 IT와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아트랙티브 테마파크인 '라뜰리에'를 소개했다.

라뜰리에는 명화에 '스토리'를 넣어 '그림속으로'라는 판타지 공간을 '첨단IT기술'로 융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예술체험문화공간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황규복 의원은 "단순히 쇼핑만 하는 관광에서 이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관광의 시대가 시작됐다"며"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서울의 미래 관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4년 이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2.9% 하락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2014~2018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2018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 재정운용,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현황, 재정현황, 재정지표 등을 분석했다.

2018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5,585억 4천5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42.1% 증가한 반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4년 대비 2.9% 하락하고 최고·최저 자치구의 격차가 3.2배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2014년 3,931억 3천3백만원에서 2018년 5,585억 4천5백만원으로 42.1% 증가했고, 2018년 현재 강남구가 8,119억 9천3백만원으로 최고, 종로구가 3,841억 9천8백만원으로 최저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9.2%에서 2018년 36.3%으로 2.9%포인트 하락했고 2018년 현재 강남구가 67.9%로 최고, 노원구가 21.1%로 최저로 자치구간 격차(3.2배)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비중은 48.07%로 2014년 대비 2.74% 증가, 보조사업비중은 51.6%로 2014년 대비 2.8% 증가하여 자치구의 재정운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중은 2014년 45.33%→2018년 48.07%로 2.74% 증가했고, 2018년 현재 노원구가 60.17%로 최고, 중구가 28.4%로 최저이고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비중은 2014년 26.5%→2018년 23.12%로 3.38% 감소했고, 2018년 현재 종로구가 30.12%로 최고, 노원구가 18.17%로 최저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자체사업비중은 2014년 20.9%→2018년 24.4%로 3.5% 증가했고, 2018년 현재 서초구가 39.1%로 최고, 노원구가 17.2%로 최저이고 자치구 평균 보조사업비중은 2014년 48.8%→2018년 51.6%로 2.8% 증가했다.

정양석 의원(오른쪽)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 정양석 의원, 김영철 방한 관련 현안질의

### "상대 남남갈등 해결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대북정책 필요"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국회의원은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정양석 의원은 조명균 장관에게 "김영철 방한으로 천안함 유족분들이 상처 입고 국론이 분열되어 야당이 길거리로 나섰다. 이런데도 정부는 김영철을 군사도로로 빼돌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조차 못했다. 사과 요구도 못하는 정부가 북한에 핵은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영철 방한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지만 고민했다. 우리가 여당이었다면 어땠을까. 정부가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대변할 것이 아니라 천안함과 연루되어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민과 야당에 이해를 구했다면 지금의 남남갈등은 없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양석 의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멀리 가는 길을 갈 것"을 주문했다.

이동진 구청장이 목요데이트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 참여자들과 만나 대화했다.

## 이동진 구청장 골목길 사업 참여자들과 목요데이트

### 골목길 사업 참여자 대상…사업 효과·개선점에 대한 의견 나눠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동진 구청장이 지난 28일 구청 자운봉홀에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2월 목요데이트를 개최했다.

도봉구 14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목길 사업 참여 주민들은 이날 목요데이트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밖에도 기타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에 앞서 이동진 구청장은 "최근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시행에 따른 공사 재개. 도봉구 역사상 최초 대통령 방문 등 연초부터 도봉구에 좋은 소식들이 줄 잇고 있다"라며, 주요 구정 소식을 전했다.

이어 "2015년 쯤 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은 골목환경에 대해 끊이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시행한 사업이다. 몇 년 동안의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우범지역 문제 등으로부터 골목길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구민들의 문화의식도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야기가있는 골목길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대화를 통해 방학3동 참여자는 "2016년 골목길 사업에 시작해서 신학초등학교 통학로 옆 골목의 변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쓰레기도 없어졌고 학생들의 포토존이 되고있다. 최근에는 신학빌라 역사만들기 사업을 지난 해 제안해 시작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빚어낸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골목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해 준 구청장님께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최근 도봉구 구정과 방학3동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도봉구의 것을 배우기 위해 타 구에서 방문을 해준다는 것 기분좋은 일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도봉1동 참여자는 "사업 전 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목은 중고등학생들의 우범지역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CCTV 설치가 되어 우범지역에 따른 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을 통해 일어난 골목의 변화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밖에도 사업과 관련한 건의와 구정에 대한 의견도 쏟아냈다.

사업과 관련한 건의로는 "골목길 사업에서 '골목'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했고, 이에 구 관계자는 "올해는 '골목'이 아닌 '길'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구정에 관련한 건의 내용으로는 '샘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운동기구 추가 설치', '도봉역 사거리에 대각선 보행신호 운영', '도봉역 인근 좌회전 주행유도선 표시', '도봉1동 자치회관 마련', '창2동 우영마트 앞 5거리, 보행안전 위한 일방통행 요청 진행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봉2동의 벽화그리기 활동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골목사업을 통해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사업 참여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이 구청장은 "골목길 사업과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점에 대해서도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행정은 주민들의 활동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골목모임에 대한 내용이 공고에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상가길까지도 가능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넓혀 놨다"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 매월 개최해야 하는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8개월간 개최 안 해

김선동 의원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도봉을, 정무위)은 2002년 한국GM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 적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만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GM이 가져갔는데 같은 기간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배당 수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미국GM 5,000억원, 한국산업은행 2,132억원 등이 투자되어 한국GM이 설립됐고 이후 미국GM은 2009년 유상증자(4,912억원)를 통하여 약 1조원을 한국GM에 투자했다. 2016년 기준 한국GM 매출액은 159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1조8,1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7년 잠정 당기순손실 1.1조원을 합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문제는 GM은 한국GM의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났더라도 주식 배당금 등 금전 수익은 0원이었고, 현재 한국GM의 주식 장부가치도 0원으로 산정되면서 2002년 2,132억원 투자에 대한 가치와 수익 모두 0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 GM의 위기는 GM의 유럽 시장 철수 결정이 있었던 2013년 이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2014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시작됐는데도 한국산업은행이 경영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2016년 4월이었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한 것도 2017년 3월이었다. 이마저도 GM의 비협조로 감사가 중단됐고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자 이제야 정부가 나서서 경영실사를 진행하겠다는 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방만경영과 인력, 비용을 줄이는 그야말로 피와 살을 깎는 전쟁과도 같은데, 자금 지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라지고 선무당 격인 산업부가 나서게 된 것 자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며,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노사고통 분담만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이 도선사 타종식에 앞서 최선 사무국장 등 당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 박용진 의원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참석

### 3·1운동 복장하고 만세 외치며 행진…선조들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우이동 봉황각 일원에서 개최된 '제15회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에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3·1독립운동 당시의 복장을 하고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과 함께 우이동 솔밭공원에서부터 봉황각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지역위원회 최치효 부위원장과 최선 사무국장, 서승목 사무차장, 안광석 정책특보, 허광행 조직국장이 함께했다. 또 주민 2000여 명이 참가해 타종식, 기념식, 태극기 거리 행진, 풍물패 길놀이 등을 함께하며 3·1독립운동 당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한편, 3·1절 기념행사가 진행된 봉황각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1912년에 세운 건물이다. 또 483명의 독립운동가를 양성시키기도 한 3·1독립운동의 발상지다.

## "가상통화·블록체인,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 박용진 의원, 지난해 7월 가상통화 관련 법안 최초로 발의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나아갈 길을 논의한 디지털금융포럼에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디지털금융포럼-디지털금융과 블록체인 플랫폼 전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이고, 새로운 이야기"라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발디디어 나가야 할 그런 분야"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통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도 함께 의논해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나아갈 길을 논의한 디지털금융포럼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디지털금융통화협회·한국4차산업혁명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금융포럼이 주관하며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 관계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북신문
www.igangbuk.com 대표메일: igangbuk@hanmail.net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에서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학생, 시민들이 봉황각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에서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도선사에서 봉황각에 이르는 길에서 만세를 부르며 내려오고 있다.

# "3·1절, 태극기 휘날리던 그 날 함성을 함께"

## 제99주년 3·1절 맞아 3·1운동 발상지인 우이동 봉황각 일원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
## 2천여명 태극기 들고 거리서 함성 외쳐, 타종식, 풍물패 길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

3월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우이동에 소재한 봉황각 일원에서 기미년 독립만세 재현행사가 펼쳐졌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북한산으로 오르는 길어귀에 자리한 봉황각(鳳凰閣)은 3·1독립운동의 발상지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1912년에 세운 건물이다. 483명의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독립운동의 산실인 이곳에서 3·1운동을 기획하고 민족대표 33인 중 15인을 배출했다.

강북구는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게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일깨우고자 해마다 3·1절이면 봉황각 일원에서 3·1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3·1절 100-1주년을 맞아 기미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오는 3월9일 오후 1시30분부터 봉황각에서 '3·1독립운동의 현대적 의미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진행될 학술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유사 사례 비교연구 등을 통해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재현행사는 오전 9시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10시30분부터는 태극기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풍물패의 길놀이와 함께 3·1운동 당시의 복장을 한 자원봉사 학생 800여 명이 선두에 서고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뒤따랐다. 이들은 봉황각까지 2km가량 거리를 행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오전 10시 도선사에서는 타종식이 진행됐다. 홍익인간 및 광명이세의 이념이 널리 선양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주민대표 등이 도선사 종각 범종을 33회 타종을 실시했다.

우이동 솔밭공원과 도선사에서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은 오전 11시 30분 봉황각 정문 앞에서 합류했고 봉황각 수련원 경내 행사장으로 이동해 기념식을 진행하며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 참배 및 헌화를 이어갔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봉황각 일원에서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봉황각 강당에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1독립운동 전개과정을 담은 사진 전시를 비롯해 독립선언문 인쇄, 독립민주 기념비 입체퍼즐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이 운영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약 100년 전 이곳 봉황각에서 순국선열들은 목숨을 걸고 3·1운동을 기획했다. 이분들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도 큰 의미를 지닌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될 뿐더러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3월 1일 온 가족이 함께 봉황각에 오셔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 우이동에 자리한 근현대사기념관(관장 이준식)에서도 '무너미 마을의 만세 소리'를 주제로 3·1절 행사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독립운동 영상 상영 ▲초대(初代)길을 주제로 한 야외 전시 ▲함께 만드는 대형 3·1독립 선언서 ▲독립 민주정신을 담은 바람개비 만들기 ▲'평등', '자유', '민주' 켈리그라피 체험 ▲독립민주 기념비 입체퍼즐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열린 '1919년 3월 1일, 그날의 꿈' 행사를 보완·발전시킨 프로그램"이라며 "무너미는 수유의 옛 이름으로 강북구에 울려 퍼진 3·1운동의 열기를 재현하자는 의미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매년 3·1절마다 '나라사랑 전 가정 태극기달기 운동'도 추진한다. 올해 3·1절에도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한 선열의 위업을 기리는 '태극기 달기 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우선 구의 16개 부서와 13개 동으로 구성된 '3·1절 태극기 달기 으뜸 강북 T/F팀'을 구성했다. SNS를 통한 릴레이 홍보는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는 태극기 게양 집중 홍보를 추진하며 버스, 택시 등에도 태극기 달기 게시물을 부착한다. 또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태극기 게양 실태를 확인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강북구의 높은 태극기 게양률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작년 행사에는 게양률이 66.1%에 달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증받은 태극기가 약 1만7,000여 개, 태극기꽂이대가 2만3,000여 개에 이른다.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프로그램 중 '나도도예가'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모습.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 마을학교 127개 최종 선정

### 도봉형 교육 실현,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통해 교육 기회 제공

도봉구는 2018년도 도봉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결과 마을학교 127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말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 달여간 공모를 진행, 접수된 158개 사업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최종 선정된 127개는 지난해 120개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사업의 세부 분야로는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동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사업 △거점 마을학교 △지역연계 체험 프로그램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4억3천6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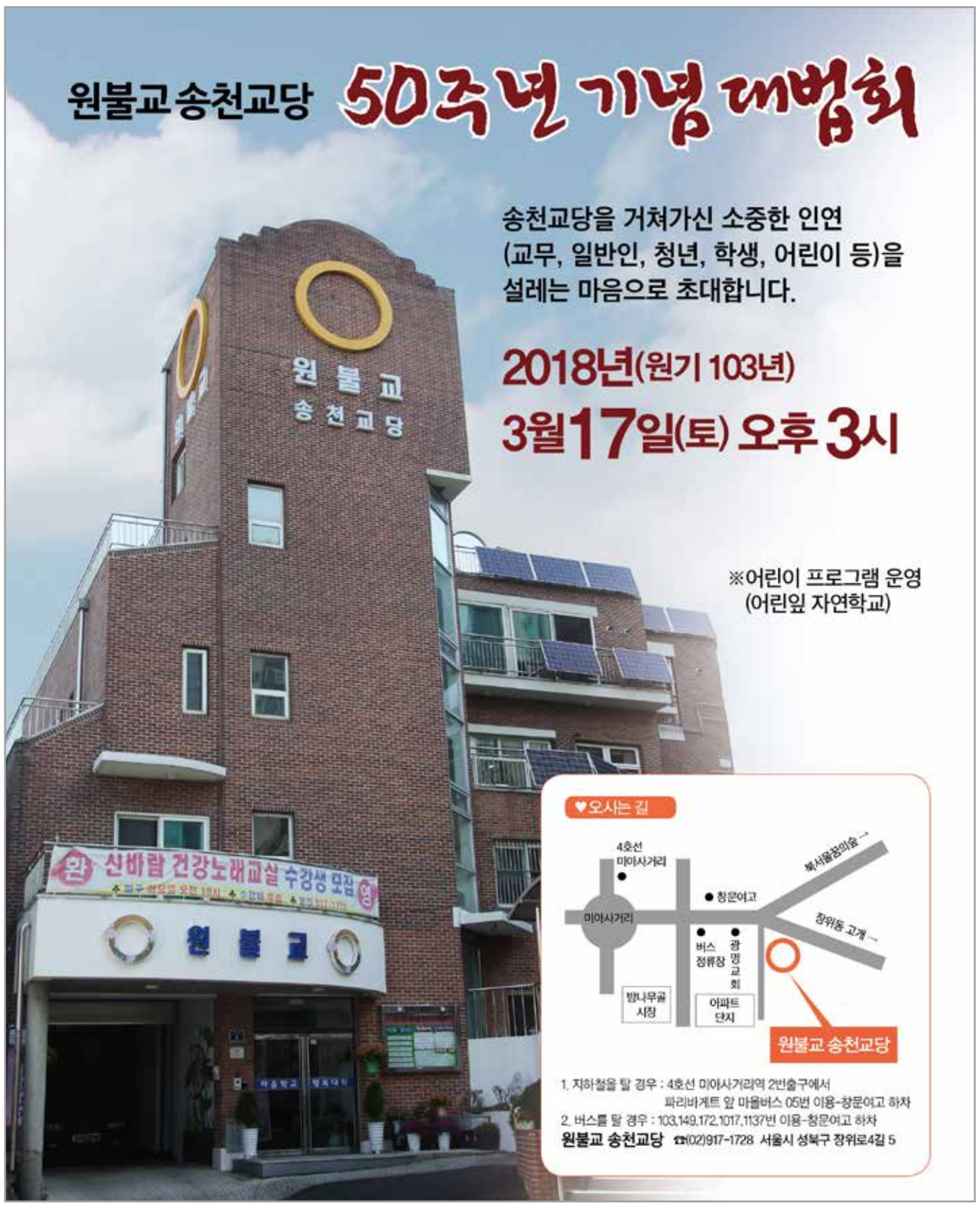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설계형 마을학교'는 연극, 과학수사, 설치미술, 팝아트, 요리, 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동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은 마을교육 활동가, 행정동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센터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을 펼친다. 올해는 7개 동이 참여하여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마을교육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음악, 연극, 식생활, 직업체험 등 기관의 전문분야를 살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 마을학교', 도봉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학급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연계 체험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도봉 마을학교는 4월 초부터 본격 운영되며, 수강신청은 3월 7일부터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봉구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도봉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3기 구민감사관 위촉식 및 상반기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 제3기 구민감사관 위촉식 갖고 본격 활동

### 도봉구 26일, 분야전문과 일반구민 감사관 23명 구성해 운영하기로

도봉구가 지난 2월 26일 구청 간송홀에서 제3기 구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연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구민감사관은 토목, 건축,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구민감사관 9명과 감사활동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지닌 각 동대표 일반구민감사관 14명,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정기의회에서 구민감사관들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구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도봉구 구민감사관은 2017년 한해, 자체감사 참여 4건을 비롯하여 현장점검 20건, 주요행사 모니터링 7회 및 각종 주민불편사항 제보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활동영역을 이전보다 확대하여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점검 등에 참여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도봉구를 살피는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구민감사관의 따끔한 충고와 제안을 통해 하나 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책 읽는 도시 도봉 '책이음서비스'로 통한다

### 회원증 하나로 전국 대출가능…지역 내 구립도서관에서 회원증 발급

한 장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도서관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봉구 책이음서비스'가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에 밀려 국민독서량이 감소하는 요즘과 같은 때,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방법은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unilib.dobong.kr) 회원가입 후 지역 내 구립도서관 또는 공립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고 사용하면 된다.

기존 도서대출 회원증은 책이음서비스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교체 발급되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책이음서비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등으로 구민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욱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로 책 읽는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책이음서비스 관련 문의 및 전국 책이음서비스 도서관 검색은 공식 홈페이지(http://book.n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